

韓國의 建築的傳統

Architectural Tradition of Korea

I. 建築的 傳統의 意味

傳統이란 時間의 흐름과 함께 形成된 特定の 文化 圈域 속에 內在하는 어떤 秩序의 흐름을 의미한다.

특히 文化史의 側面에 있어서 傳統은 當代에는 勿論 後世에 있어서도 共感을 줄 수 있는 固有한 價値를 內包하고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그 傳統이 形成된 地域性의 범위 안에서 時間을 超越한 生動하는 感受性의 體驗을 줄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藝術的 傳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建築이라고 하는 藝術의 한 部分에 있어서 傳統은 어떠한 意味로 解析되는 것인가.

흔히 建築은 時代의 反影物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建築은 그것이 產出된 當代의 諸般人文, 社會 自然的 狀況들——文化, 思潮, 經濟技術, 등——의 時代特性을 反影하고 있는 것이다. 고딕의 建築은 中世의 神本位的 思潮를, 에펠탑은 現代의 初葉에서 技術에 매료된 人類의 환희를 보여준다.

한 時代가 아무리 그 자신을 僞裝하려고 하여도 그것 자체의 本質은 建築을 통해서 나타난다」—〈기네온〉

「어떤 時代의 建築의 위대함——그 의미깊은 形式과 아름다움——은 民族, 또는 國民全體가 갖는 特殊한 資質의 存在에서 由來한다」—〈H. 리이드〉

진정 建築은 地域이라고 하는 空間軸과 時代라고 하는 時間軸의 交點에서 맺어지는 時代의 表現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時間의 흐름과 함께 時代狀況역시 變化한다. 이 사실은 時代狀況의 反影으로서의 建築的 Style의 諸般변화를 야기한다. 建築은 時間軸上에

金 熙 春

서 有機體的인 부단한 成長과 死滅의 過程을 거듭한다. 그過程은 곧 建築史이다.

建築의 이러한 有機體的 興亡의 부단한 展開過程에는 흔히 反復的인 週期性이 發見되기도 한다. 한 스타일의 興盛期의 持續은 그 스타일에 대한 反動으로서의 새로운 스타일이 到來함으로써 衰退의 週期로 돌입한다. 中世紀的인 것에 대한 르네상스의 인 것, 바로크的인 것에 대한 로코코的인 것 등은 相互命題間에 엔티테제의 關連性을 보여준다.

過渡期의 事實(transient fact)이란 한 스타일에서 다른 스타일로 이어지는 過渡期에 나타나는 一時的으로 存在하는 스타일을 의미한다. 이것은 그 자체의 建築의 本質은 時代精神에 逆行하는 劣性을 나타내지만 그것은 活性을 가진 새로운 스타일의 登場에 對해서 촉매로서의 역할을 遂行할 뿐이다.

이에 反해서 構成的 事實(Constructive fact)이란 스타일의 變身에도 불구하고 그 背後에 흐르는 끊어지지 않는 綿綿한 흐름의 秩序를 의미한다. 그것은 時間을 超越한 建築的 秩序이며 本質이 되는 것이다.

現在에 있어서 過去의인 것이 갖는 의미는 그것이 現在라고 하는 狀況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生動感을 가진 事實인 경우이다.

〈E.H. 카아〉는 過去를 보는 이와같은 見解를 「歷史는 歷史家와 史實사이의 相互作用의 부단한 過程이며 現在와 過去사이의 끊임없는 對話」로서 皮력하였다.

지나간 모든 可視的 스타일은 단지 歷史속에서의 史實로서의 意味를 갖는다. 現代에 있어서 그것은 傳統이 아니라 過去의 남은 形態物이다.

有機體的 建築史展開의 부단한 過程의 底邊에 깔린 本質 이든바 構成的 事實이 過去, 現在, 未來라

고 하는 時間의 次元을 超越한 固有價値를 가질 때 그리고 그 固有價値가 一般大衆의 風土의 感受性的의 깊이에 密着될 수 있는 것일 때, 이를 진정한 의미의 建築的 傳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I. 建築的 傳統論議의 登場 및 背景

建築에 있어서 傳統論議는 거의 汎世界的인 한 潮流를 형성하고 있다. 주로 國際主義에서 상실한 로칼리티를 어떻게 建築의 手法로 再現하는가 하는 것이 論爭의 焦點이었으며 이는 國際主義의 붕괴에 뒤이은 自然스런 建築史의 展開樣相이다.

最初에 國際主義는 엄격한 機能主義의 空間處理와 간결한 形態表現, 生産手段에 의한 工法等 産業資本主義體制에 가장 부합되는 것으로서 거의 20世紀 現代建築言語를 대표하는 概念으로 찬양되었다.

그러나 樣式과 傳統으로부터의 離脫을 第一의 敎理로 하였던 이른바 現代造形運動은 그 스스로가 이미 劃一性이라고 하는 새로운 概念의 樣式化的 前轍을 밟고 있음이 밝혀졌다. 樣式화된 스타일, 디테일이 없는 디테일, 餘白과 漂白의 用의美 등의 개념이 표방된 國際主義樣式은 그 지나친 번성에 대한 反動으로서 人間의 深層 및 風土性, 내지는 復古主義 등의 새로운 週期性을 나타내게 되었고 이는 巨匠時代의 終焉과 함께 加速化되었다.

國際主義의 溫床이었던 義國에 있어서조차도 하버드派의 그로피우스의 建築行爲에서 라이트의인 美國의 風土表現으로서의 建築行爲에 그 眼目이 집중되고 있다.

韓國에 있어서는 1960年代에 비로소 建築에 있어서의 傳統論議가 登場하게 되었다.

韓國의 傳統論議登場의 背景은 上記한 國際主義에 대한 反動으로서의 汎世界的 추세인 로칼리즘 建築運動의 擴張線上에서 일어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現代韓國建築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國際主義 建築樣式이 移植될 時間의 與件을 갖출 機會가 없었다. 韓國에 建築的 傳統論議는 보다 다른 곳에 그 背景이 있다.

韓國에 近代建築이 도입된 것은 1910年 韓日合併前後 日本의 西歐式 折衷樣式이 移植된 事實로부터 출발한다. 日本治下에 있어서는 建築活動이 主로 殖民統治의 手段으로서 存續하였다.

光復後 既存의 折衷樣式에 建築의 內面的 本質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껍질뿐인 西歐式 모더니즘이 盛行하게 되었고 이러한 추세는 6·25 戰亂後 단지 商業主義의 必要에서 加速화된 感이 있다.

비로소 1950年代 後期부터 1960年代 前期에 이르러 몇몇 建築家들의 새로운 욕구와 經濟成長으로 建築作業이 活潑하게 遂行되게 되자 建築의 深奧한 藝術性 및 美의 本質들이 問題視되게 되었다.

韓國의 現代建築은 傳統樣式으로부터 現代建築으로 연결되는 內的 진통의 過渡期를 갖지 못하였다. 다시 말해서 韓國의 現代建築은 傳統의 뿌리에서 蘇生한 現代라는 筭이 아니라 단지 西歐로부터 移植된 接木과 같은 樣相이다.

이 傳統論議는 建築에 있어서 우리의 것이란 무엇인가 하는 表題아래 現代라는 時間과 韓國이라는 空間性 위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傳統의 建築言語를 발견하고자 하는 努力인 것이다.

2次大戰後 日本建築에 있어서도 共通된 命題는 傳統論이었다. 戰爭의 終息과 함께 다가온 傳統論議——그것은 世界속의 現代建築속에 露出된 스스로의 建築文化가 어떤 次元에 있는가를 찾고자하는 知的作業인 點지도 모른다.

적어도 日本建築의 경우 그러한 作業이 獨自의 民族文化의 遺産을 現代의 技術 및 眼目으로써 새로이 現代의인 意味를 갖는 建築文化의 質로 成功의으로 昇華시킴으로써 世界속에서 日本建築이 한 地位를 차지하게 되었다.

또 한가지 傳統論議登場의 중요한 背景의 하나로서 民族主義의 내셔널리즘을 들 수가 있다.

韓國의 特殊한 立場으로서 民族主義 내지는 내셔널리즘의 표방은 必然의인 要求인지도 모르지만 現代韓國文藝思潮의 表面에서 이것이 作用하는 影響은 무시할 수 없다.

내셔널리즘의 傳統論에서는 우리가 순수히 創造的 民族으로서의 예지를 모아 우리 時代의 藝術言語를 創造하지 않는 이상 그것은 프로파간다의 手段으로 轉落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背景아래서 傳統論議는 드디어 1966年 1月 國立博物館의 設計懸賞으로써 그 爭點을 보다 具體的이고 積極的인 것으로 擴張하게 되었고 내셔널리즘의 傳統論의 結果를 드러내게 되었다.

民族主義의 내셔널리즘은 모뉴멘탈리티를 요구하며 모뉴멘탈리티는 가장 傳統的이어야만 한다는 意圖的 造形意志를 要求하게 된다. 國立博物館은 意圖的 造形意志로서의 傳統性具現이 가장 歪曲된 建築空間으로 表現된 建築物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固有의 配置 및 景觀의 秩序를 갖고 있는 慶福宮內部에 세워졌다는 立地上的 問題, 過去의 建築的 遺産을 現代의 手法로 再現한다고 하는 問題를 갖고 있다.

그것은 現代의 建築言語에 對한 一種의 反撥이며 時空間 속에서의 建築存在의 本質的 意味를 무시한 建築行爲라고도 볼 수 있다.

이밖에도 친박한 觀光趣味의 발로라고 생각될 수 있는 事例들——昌慶苑의 水亭宮 등——계승하고자 하는 것은 傳統의 本質이 아니라 時代逆行的인 舊時代의 한 方法論의 踏習인 것이다.

建築에 있어서 傳統論議를 形態의 表現으로서만 具現하고자 하는 이상의 歪曲된 事例들이 續出하면 서도 傳統論議는 展開되어 대략 다음과 같은 方向에서 建築의 傳統의 解析의 問題가 論議되고 있다.

1. 古典建築의 變形作業을 거쳐서 創作의 方法으로 삼는 態度
2. 傳統의 現代의 解析을 裝飾의 手法에서 찾고자 하는 態度
3. 形態의 表現上的 傳統追究은 無意味하며 內面的인 精神性을 發掘하자는 態度
4. 現代에서는 오늘의 與件단을 생각하자는 傳統無用論

以上の 傳統論議는 아직까지 그 結末을 보지 못하고 있다. 또한 論議 그 자체로서는 意味를 갖추고 있지만 建築實體로서 傳統論議를 具現化하는 作業은 아직도 요원한 바 있다.

Ⅲ. 韓國의 建築의 傳統

① 立地 및 配置

韓國建築에서 立地 및 配置를 支配하는 論議는 風水說과 陰陽說이다. 이 說은 結果의으로 人間이 어떻게 大自然과 잘 融和할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一種의 手法라고 할 수 있다. 現代의 Site Planning 技法과도 一脈相通하는 科學性이 發見된다는 點에서 示唆의이다. 또한 建築計劃에 關連되는 事項中 絕對的 條件의 하나로서 自然을 우선 順位로 잡는 手法으로도 되는 것이다. 自然을 尊重하고 이것에 順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根本的인 思想이라고 하겠다. 建築으로 하여금 自然을 有形無形으로 損傷하지 않고 自然과 잘 調和시키코저 하는 意圖自體가 韓國의 建築의 傳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② 建物の 空間構成

韓國建築의 建物の 空間構成은 基壇部, 軸部, 拱包帶, 지붕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花崗石의 基壇部는 垜地에 對한 建物の 安定感을 준다. 基壇이 없는 軸部만의 空間은 拱包帶 및 지붕의 重量感으로 해서 不安定感을 줄 것이다. 처마의 曲線은 基壇部의 直線과 對比하는 效果를 노린 것이며 拱包帶는 軸部와 지붕의 接合部에 對한 두가지의 異形의 形態構成을 完충시키는 役割을 하고 있다. 同時에 지붕의 單調로움에 均衡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섬세한 構成美를 演出하고 있다. 지붕의 曲線은 柔軟하고 하늘과 닿는 點에서 視覺的 絶頂을 이룬다.

大體로 아래와같이 要約할 수 있다.

- 가) 全體의인 構成을 企圖
- 나) 人間의 Scale에 置重
- 다) 誇張없는 率直한 表現

以上の 기교에 앞선 깊은 뜻을 構成的 事實로서 認定해야 할 것이며, 傳統의 要素라고 보겠다.

外部空間을 構成하는 담장, 窓戶의 汝樣等은 이러한 原則的인 思想의 表現方法의 한가지 手法이며 全體의인 것은 아닐 것이다.

Ⅳ. 앞으로의 課題

이상에서 몇가지 韓國의 建築의 傳統이라고 看做될 수 있는 特性 몇가지를 간략하게 간추려 보았다. 詳論은 생략기로 한다.

이제 여기에서 問題가 되는 것은 傳統論議와 結付되어 建築家에게 附與된 課題를 어떠한 姿勢에서 遂行하겠는가 하는 點일 것이다.

建築家에게 있어서 傳統論議의 姿勢는 古建築研究나 讚揚이 아니라 民族의 感受性에 密着될 수 있는 建築的 固有價値를 찾아내는데 돌려져야 할 것이다.

韓國現代建築은 過去의 韓國建築이 가졌던 것을 참다운 意味의 解析을 通하여 오늘의 날말로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참다운 建築일 수 있을 것이다.

復古取向, 내셔널리즘에 근거한 傳統論議는 現代의 傳統論議가 胎動되기 위한 過渡的인 事實으로서의 意味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眞正한 建築에 있어서의 傳統은 作家가 그 內面에 蓄積된 것이 分解된 結果로서의 自然스러운 創造의 表現속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라이트>나 <알토>의 建築은 이러한 作家에게 內在하는 風土性의 自然스러운 歸結을 보여주고 있다.

傳統繼承이란 過去의 踏習이 아니라 過去에 對한 안티테제이어야 하고 現代로서의 進테제를 찾는 것일 것이다.

그런 意味에서 建築이란 그 時期의 그 作家가 아니면 할 수 없는 創造的인 것이어야 할 것이다.

우리 民族의 情緒속에서 生動하는 時間을 超越한 建築思想과 哲學을 發見하고 그것을 現代의 建築言語로서 表現하는 作業이 또한 未來에 이어질 現代의 傳統을 樹立하기 위한 建築家의 課題일 것이다.